

그림 여행



클레브스의 앤 약혼 초상화

(Betrothal Portrait of Anne of Cleves, C. 1539)

한스 홀바인 (Hans Holbein 1497 - 1543)

양피지/캔버스에 유채 65 cm x 48 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1539년에 영국 왕 헨리 8세의 궁정 화가 한스 홀바인은 왕명을 받들어 독일 버그 공국으로 떠난다. 헨리 8세의 4번째 왕비로 고려되고 있던 앤 클레브스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였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왕비 캐서린과의 억지 이혼, 두 번째 왕비 앤 불린의 처형,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어의 죽음 등으로 악명 높던 왕이었다. 유럽의 명망 있는 왕가나 귀족 가문의 어느 누구도 선뜻 딸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다.

독일 버그 공국의 공주로 태어난 앤의 경우 정치적 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헨리 8세와의 혼담이 진행되었다. 헨리 8세는 마음을 굳히기 전에 앤의 인물을 보고 싶어 했고 당시 미리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 오라고 궁정 화가 한스 홀바인을 파견한 것이다

막중한 임무를 띤 한스 홀바인이 그녀의 초상화를 충실하게 사실대로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후대의 추측이 분분하다. 그녀의 인물은 별로 좋지 않았으나 아름답게 보이도록 홀바인이 일종의 '포토샵'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초상화를 본 후 결혼이 성사되어 헨리 8세가 실제로 그녀를 만났을 때 대단히 실망했기 때문이다.

헨리 8세와 그녀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6개월 후 헨리 8세는 결혼을 무효화 하기 원했고 앤은 순순히 받아 들였다. 왕에게 맞서지 않은 덕분에 앤은 막대한 위자료와 영지를 받았다. 왕의 '여동생'이라는 신분도 받았으며 불행한 딸로써 맞았던 헨리 8세의 다른 왕비들과 달리 영국에서 편안하고 유복한 삶을 살았다. 헨리 8세는 그 후 두 번 더 결혼했으며 5번째 왕비 캐서린 하워드를 처형하기까지 했다.

클레브스의 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사실적인 묘사와 인물의 정확한 표현으로 유명했던 한스 홀바인이 헨리 8세의 진노를 샀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그녀의 초상화는 실제 인물과 비슷했을 것이라 본다. 단정하고 복스럽게 생긴 외모가 왜 싫었는지 모르겠으나, 왕비 대신 여동생이 되어 무사히 살아 남았으니 다행이 아닌가 싶다.

김 동백

Laura Hair 플러튼
로라 헤어
30주년 기념
BIG SALE

헤어컷 + 펌 + 코팅 or 컬러 \$40^{UP}
남자 헤어컷 \$10
여자 헤어컷 \$12
헤어컷 + 컬러 \$20
헤어컷 + 펌 \$30
컬러 + 트리트먼트* (탈모방지) \$30
특수펌 \$40 (상하고 약한 모발을 건강한 모발로)

예약 전화 **714-900-9607**

구이마을
숯불구이

황태구이, 야구찜, 곰장어, 곱창구이

대창구이 / 곱창구이 / 막창구이 / 찞不理 / 소불고기 / 돼지불고기 / 이면수 구이 / 고등어 구이 / 조기구이

☎ 714.484.9292
8535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러
KUNI횃집으로 오세요!!



(714)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KUNI
SASHIMI HOUSE

OPENING HOURS
Mon: Closed
Tue-Sat: 3PM-12AM
Sun: 3PM - 10:30PM